

영재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연구

장 영 숙 · 임 희 준(한국교육개발원)

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최대한 개발될 수 있으려면 그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영재들의 특성과 능력 수준을 잘 반영하여 영재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한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한다는 측면에만 그치지 않고 한 국가의 주요 자원을 개발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이미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각종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영재교육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영재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지식과 경험의 부족, 행·재정적 지원의 부족, 교수-학습 자료 및 판별도구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영재교육이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1999년 12월 28일 영재교육진흥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도 영재교육이 제도권 교육으로서 실시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도부터는 보다 본격적으로 영재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재들의 잠재적인 지적 능력을 학문적이고 전문적이며 성숙된 성취 수준으로 구현시킬 수 있는 영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교육과정의 내용과 성격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1999년도에는 영재교육과정 총론 및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준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 대한 영재교육과정 시안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영재교육 전반에 대한 지침이 되는 교육과정을 마련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99년도에 개발된 영재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영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은 기본과정 심화과정, 선택과정의 세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는 영재교육과정 중에서도 심화과정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학교 1-3학년의 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영어, 과학 각 1종을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분리하여 2책씩 개발하였다(초등학교용 5종 10책, 중학교용 5종 10책).

이를 위해, 영재 교수-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모형들, 영재 및 영재 교수-학습 자료의 특성에 관한 기존의 이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본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적절한 교수-학습 모형을 구상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였고, 구안된 모형을 이론적 틀로 삼아 본 교수-학습 자료의 집필 세목 및 지침을 개발하여 원고 집필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학교급별/교과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원고 집필을 의뢰하였고 원고 집필을 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진이 중간중간 단원별로 원고를 검토하여 집필진에게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자료를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적용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자료를 수정·보완하였다. 2000년도에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는 영재학교와 영재학급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영재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에 해당하는 영재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개발된 자료들과는 구별된다.